

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이 윤 주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이 영 미 (천안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후기 청소년기에 도입하는 대학 1, 2학년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대학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학령기 아동이나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 1, 2학년인 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심리적 변인인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1, 2학년 287명(1학년 172명, 2학년 115명, 여학생 180명, 남학생 10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10.0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유형은 후기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백지숙, 2000), 최은실(2001), 또래 애착(최은실, 2001)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이어 성인애착유형 역시 후기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것으로써, 초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의 삶에까지 이어진다는 주장(Cummings & Cicchetti, 1990)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후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학교 규칙과 학교 행사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아개념(김현덕, 2000), 자아정체감(윤여경, 2002), 자아존중감(양현정, 2003), 자기효능감(이윤조, 2002), 정서지능(최영희, 1999) 등의 긍정적 개인내 특성이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요 심리적 보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역시 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의미있는 영향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은 각각 학교 규칙과 학교 행사 영역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 학교 행사보다 학교 규칙에 대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다는 연구(구자은, 2000)를 지지하는 것이며, 성인애착유형이 사회생활적응의 한 지표가 되는 우울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고은정, 1997)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